



# YPF

September 2010

## Greetings to my North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It was wonderful to see you face to face and share His Kingdom vision with you during my US visit.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YUST, PUST, and the

North Korean Children Program through YPF, which are truly the interests of our Lord, Jesus Christ. Our mighty God has chosen to work through your faithful love and care with your prayers and giving. You have made me even more humbled and amazed at His goodness.

We are pushing hard to start classes this fall. Important materials were shipped to Pyongyang recently, and more are on the way. We have recruited about fifty faculty members for the first semester. In addition, North Korean academic delegates visited us in Yanji, China, for the 5th PUST Academic Meeting starting on March 7, 2010.

My humble request is for you to support us in every way you can. His time is truly near. I want to invite you to work with YPF and see first-hand His miraculous work. Come and see what the Lord has been do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Let us hope for many great things from Him and for Him. May the Lord's Grace and Peace pour abundantly upon you.

Chin-Kyung Kim  
President of PUST & YUST

북미 지역에 계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지난번 미주 방문을 통해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께서 실로 우리 주님의 관심에 마음을 합하여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북한 어린이 돕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와 물질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의 신실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늘 저 자신이 더욱 부끄럽고 한편 그 분의 놀라우신 능력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저희는 올 가을에 평양과기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요한 기자재들이 평양에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더불어 구입해야 할 것도 많아지는 형편입니다. 저희는 첫 학기를 위해 50여명의 교수진을 임용했고, 3월 7일에는 북한의 학사위원들이 중국 연길로 와서 제 5차 학사회의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감당시키신 모양과 분량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YPF의 사역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사역을 체험하는 현장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지구의 반대 쪽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모쪼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 김진경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공동총장

YPF is an abbreviation for YUST PUST Foundation, where YUST abbreviates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ST abbreviates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logo of YPF reflects our prayer for God's will and love to flow like a river through YPF.

YPF i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in China, and the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in North Korea, through Christian-based spiritual, academic, and financial resources in North America. YPF serves as a hub to connect the two universities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North America who share common values and vision.

YPF 는 YUST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UST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Foundation 의 약자이며, 한글로는 북미 연변·평양 과학기술대학 후원회로 표기합니다. YPF의 로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YPF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길 기도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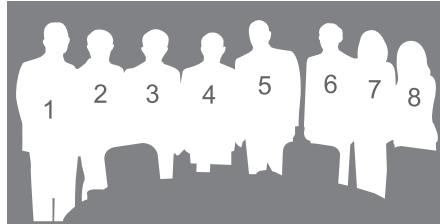
북미 연변·평양 과학기술대학 후원회 (YPF)는 중국과 북한에 설립된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를 기독교 정신 하에 신앙적, 학술적,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북미지역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YPF는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지원을 원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이 두 학교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President Chin-Kyung Kim Visits the U.S.

Chin-Kyung Kim, President of both YUST and PUST, visited the US from January 27 through February 16, 2010. Accompanying him were PUST Vice-President David Kim and YUST professors Dan Ko and Debbie Ko. Their aim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the YPF as a YUST and PUST support mechanism in the US. The visit yielded numerous results, including the defining of YPF's mission and function and the selection of YPF Board and executive members, with Alicia Mang as Chair of the Board and Joshua Song as the President of YPF. President Kim and his team were also able to visit Chicago, New Jersey, New York, Baltimore, Washington D.C., Los Angeles, and Canada in order to advertise the opening of PUST in 2010, while also establishing academic ties with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Trinity College, Wheaton College, and Concordia University. They also visited various Korean churches in the US, including the Korean Church of Champaign-Urbana. In addition, question-and-answer sessions regarding YUST and PUST were held for select mass media and entrepreneurial organizations.



1. Dan Ko, 2. Joshua J. Song, 3. David Kim, 4. Chin-Kyung Kim, 5. Craig Williford, 6. Paul Mang, 7. Alicia Mang, 8. Debbie Ko

#### 김진경 총장 미주 방문

2010년 1월말 김진경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공동총장 일행이 2010년 평양과기대 개교에 대한 홍보와 YPF 결성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미주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Alicia Mang YPF 이사장과 송재호 YPF 회장을 포함한 YPF이사진 및 임원진의 윤곽이 잡히고, YPF가 북미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총장은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김혁환 평양과기대 부총장, 고동훈, 고홍희 교수와 함께 시카고, 뉴저지,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 LA, 캐나다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미주 방문 중 일리노이대학, 트리니티대학, 휘튼대학, 콘코디아대학 등에서 2010년 개교할 평양과기대를 홍보하고 학술교류를 추진했습니다. 김진경 총장 일행은 또한 삼페인 어버나 한인교회 등 미주 지역 한인교회, 각종 언론, 주요 기업인을 대상으로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 사역을 설명하고 관심있는 개인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YPF Worship Service

YPF officially launched its activities as a registered non-profit organization at Techny Towers on April 23, 2010, during a worship service in the Africa Chapel. About 70 participants attended, among them Elder Kim, Hyun-Soo, Reverend Park, Young-Ho of Promise and Fulfillment Presbyterian Church, Reverend Park, Sang-Jin of Christian Medical Mission, Reverend Myung, Byung-Hyun of Skokie Korean Church, and Reverend Jacob Kim of Full Life Christian Fellowship. Elder Kim, Hyun-Soo gave the opening prayer, Reverend Park, Young-Ho delivered the sermon, Reverend Park, Sang-Jin gave the offertory prayer, Reverend Myung, Byung-Hyun gave the benediction, and Reverend Jacob Kim gave a congratulatory message. After the service, Alicia Mang and Joshua Song, Chair of the Board and President of YPF respectively, gave brief introductory messages and acknowledgments. The service was then followed by a celebratory dinner.

YPF awaits your participation. There are three ways to be a YPF supporter: prayer, financial supporter, and volunteer.

#### YPF 창립예배

YPF는 2010년 4월 23일 일리노이주 노스브룩에 위치한 테크니타워 아프리카채플에서 창립예배를 가졌습니다. 같은 달 10일 일리노이 주정부에 공식적인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된 YPF는 이날 창립예배를 통해 본격적인 후원활동에 들어갔습니다.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창립예배는 김현수 장로의 개회 기도와 박영호 목사(약속의 교회)의 설교, 박상진 목사(기독교의료선교회)의 봉헌기도에 이어 명병현 목사(스코키 한인교회)의 축사와 김야곱 목사(순생명교회)의 축도로 진행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Alicia Mang YPF 이사장의 단체 소개와 송재호 YPF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간소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 Testimony 간증

### Ward Canfield

Academic Director of YPF

I was born to Christian parents in Des Moines, Iowa. While at university as a young man, I studied Genesis with a Bible teacher and accepted God's word to Abraham in Genesis 12:2,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Later during John's Gospel study, I accepted John 7:17, "If anyone chooses to do God's will,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i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These two verses became my guiding lights to find my meaning and place in the world. Later, I met a young Korean lady who loves God and wanted to obey God, and prayed to establish a family that would glorify God and be a blessing to others. In Korean I call my home "축복 받는 가정" (a family receiving blessings) and pray to have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lives that are pleasing to God)."

The Lord blessed me and gave me a burning desire to do something for Him using the blessings He had given me in my life. This became a desire to work in missions, especially in North Korea. God gave me the opportunity to give my sabbatical to Him and go to YUST in 2007 to teach mathematics and witness to YUST students for one year, and to participate in PUST planning. I have a vision that one day God's elect in the NK will live happy and free lives, and that Korea will not be like a broken family. I continue to pray to learn God's purpose for me in this great work. I am thankful to God who blessed me in many ways when I decided to have faith like Abraham's. I believe that anyone who loves God and grows in obedience to Him with simple faith like Abraham will experience blessings like Abraham, the father of all who live by faith.

(A detailed testimony will be posted soon on the YPF website.)

저는 아이오와주 드모인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시절 저는 창세기 12장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저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12:2) 후에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써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한국 여인을 만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저희 가정을 "축복받는 가정"이라 부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셨고, 또한 저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현장, 특히 북한을 향한 열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2007년 안식년을 드릴 것을 결심하고 저는 연변과기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평양과기대 설립 준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분의 백성들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남북한이 더 이상 이산가족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전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하였을 때 여러 형태로 저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들과 똑같이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더욱 자세한 간증은 YPF 홈페이지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Ward Canfield is the Associate Professor and Department Chair of the Mathematics Department at the National Louis University. During his sabbatical from 2007 through 2008, he taught mathematics at YUST and did preliminary work with the PUST Project Team. He currently continues his professor's duties in the Chicago area and helps coordinate academic affairs for YPF.

Ward Canfield교수는 시카고 근교의 내셔널 루이스대학에서 수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07년 안식년 동안 연변과기대에서 수학을 가르쳤으며, 평양과기대 초기 프로젝트 팀에서 섬겼습니다. 현재는 YPF에서 Academic Direc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 YUST PUST Foundation

### Officers | 실무진

Joshua J. Song, President  
Sung Chul Bae, Vice President  
Heri Lee, Secretary  
Richard Park, Treasurer

### Board Members | 이사진

Reverend Danny Han  
Chin-Kyung Kim  
Alicia Mang, Chair  
Yoo-Seong Song

312.805.8646

[www.yustpust.org](http://www.yustpust.org)  
[yustpust@gmail.com](mailto:yustpust@gmail.com)

## YUST Celebrates Its 14th Graduation Ceremony

**Y**UST celebrated its 14th graduation ceremony on June 23, 2010. Founded in 1992 on a hilltop cemetery site, YUST has grown into a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with nine colleges, twelve departments, and thirty-five research institutes in the last eighteen years. The YUST family now includes a student body of about 1800, over two hundred international faculty members from twelve countries, and their families. To date, 2300 students have graduated from YUST, with ninety percent of them being able to find employment. Nearly fifteen percent of this year's graduates plan to go abroad for further study.



### 연변과기대 2010년 14회 졸업식

연변과기대는 제14회 졸업식 행사를 2010년 6월 24일 연변과기대 교정에서 많은 사랑과 축복의 격려 속에서 가졌습니다. 이 날의 졸업식은 연변과기대가 1992년에 풀 한 포기 없던 황량한 공동묘지 위에 심었던 사랑과 소망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개교한지 18년 만에 9개 학부, 12개학과로 성장했으며, 35개의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1800명의 학생들이 12개국에서 온 200여명의 교수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3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의 약 90%가 졸업 후 직장을 잡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 하였습니다. 올 해 졸업생의 약 15%가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하여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YUST and Overseas Koreans Foundation Provides IT Training Course to Korean Chinese (Chosun-jok) Teachers

**Y**UST was selected to provide an IT training Course to support Korean Chinese teachers in China by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This training was held for five days from February 22 to February 27. Thirty-one Korean Chinese teachers from three different regions of China participated in the program. Jong Mee Lee from the Korean Consulate in Beijing and nine principals of Korean Chinese schools in China were also able to observe the training and hold a discussion session about IT education in Korean Chinese (Chosun-jok) schools.

### 재외동포 재단 지원 중국 조선족 학교 교육 정보화 연수사업 시행

연변과기대 교육원은 재외동포 재단에서 중국 내 조선족학교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학교 교원 정보화 연수프로 그램을 위탁받아 지난 2월 22일부터 4박 5일간 요녕성 지역 6명, 길림성 지역 10명, 흑룡강성 지역 15명 등 모두 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금번 연수에서 북경주재 한국대사관 이종미 영사와 조선족학교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족 학교 교장 및 교원 간담회'를 별도로 갖고, '조선족 학교의 정보화 교육발전 방안'을 협의 했다.

## Sung Chul Bae, Vice President of YPF, Visits YUST

**S**ung Chul Bae, Vice President of YPF, conducted a four-day visit to YUST from June 11 to June 14. The purpose of the visit was to inform YUST faculty and staff of the procedures behind YPF's establishment and to discuss future plans for support activities in North America. This visit produced a mutual agreement to mainta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and its supporters by sharing information and maintaining open communication between YUST and YPF. In addition, they discussed efforts to build Christian networks in the Midwest region of the U.S. in order to support YUST by efficiently allocating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Mr. Bae stated that this visit was an opportunity for him to directly experience how God has been working at YUST through meetings with students, alumni and faculty members at YUST. Successive visits were made by Alicia Mang, chair of the board, and other officers of YPF to YUST and PUST.

### YPF 배성철 부회장 연변과기대 방문

배성철 YPF 부회장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연변과기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연변과기대에 YPF창립 경과를 알리고 대학 실무진들과 향후 북미지역 후원회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학 측과 후원자 측의 정보 공유와 실무자 간 연락체계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미 중서부를 시작으로 북미지역에서 기독교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학교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배 부회장은 연변과기대 학생, 졸업생, 교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번 배성철 부회장의 방문을 시작으로 Alicia Mang 이사장 등 YPF이사 및 임원들의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 방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PUST Plans Opening for Fall 2010

Classes at PUST are scheduled to begin in September 2010. North Korea has appointed the members of their PUST administration team to include the president and academic deans. Forty graduate students are currently on campus with twenty more on the way. One hundred fifty undergraduate students are also expected to arrive on campus before the fall semester. A PUST administration team including three families from YUST has departed for Pyongyang to prepare for the first classes. There is a greater significance to this opening in that it marks the very first official class session since the initial blueprint for PUST was introduced 10 years ago in May of 2001.

## 평양과기대 개교

평양과기대가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측 총장, 학과장 등을 포함한 평양과기대 교직원을 선출했고, 최종선발과정을 통과한 학생들도 속속 학교기숙사로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과기대 캠퍼스에는 40명의 대학원생이 입주했고, 앞으로 들어올 20명의 후속 선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150명의 학부생도 마지막 선발과정을 마치고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변과기대에서 대기 중이던 교수 및 교직원 세 가족이 먼저 평양으로 들어가 첫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평양과기대가 개교하게 되면 영어과목을 비롯한 정규수업이 일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1년 5월 평양과기대 건립에 관한 초안이 나온 이후 10년 만에 자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첫 수업에 안팎의 관심과 기대가 큼니다.

## PUST Opening Ceremony and Presidential Inauguration

Opening ceremonies were held at PUST in September 2009, with the inauguration of Kim, Chin-Kyung as its President. Nearly 100 officers, numerous party members of North Korea's Department of Education, 120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Gwak, Sun-Hee, the Chair of the Board of the Northeast Asian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Culture (NAFEC) were in attendance.

After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mutually approved the PUST construction plan in 2001, construction of the university was completed within five years after it began in 2004. PUST

It occupies a total of 80,000 square meters of Pyongyang.



## The 5th PUST Academic Curriculum Meeting

The 5th PUST Academic Curriculum Meeting was held in Yanji, China, from May 7-12, 2010. Among the participants were professor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YUST. Planners for PUST had been preparing to start with bachelor's degree programs for specialties including Information Engineering, Industrial Management, and Agricultural Food Engineering, as well as various doctoral programs. Although this was the 5th Curriculum meeting, it was the first one that occurred after the Opening and Inaugural meeting of September 2009. This fact engendered special hopes and expectations among PUST planners since it signaled the start of the long-awaited final preparations stage, while also symbolizing the decisive commitment to PUST by North Korean school administrators.

## 평양과기대 제5차 학사회의 개최

평양과기대 개교를 위한 제5차 학사회의가 지난 5월 7일에서 12일까지 중국 연길에서 개최됐습니다. 올 해 안에 정보통신공학부, 산업경영학부, 농생명식품공학부를 기조로 한 학부과정과 박사원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번 제5차 학사회의는 준공식 및 총장 임명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북한측 학사위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태도로 평양과기대 개교에 관한 고무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평입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해 동북아시아에 주역이 될 창조적인 미래의 동력을 개발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has 17 buildings in total, including the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Business, Food and Agriculture, Public Health, the Industrial Cluster, Administration, Student Affairs, and student dormitories. It occupies a total of 80,000 square meters of Seung-ri-dong, Pyongyang, with an area of approximately 1,000,000 square meters.

## 평양과기대 준공식 및 총장 임명식

평양과기대는 2009년 9월 16일 대학건물 준공식과 김진경 총장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북한측에서 주관부처인 북한 교육성 및 관계부처 장관 100여명이 참석했고, 남한 측에서는 광선회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후원자 120여명이 참관했습니다. 평양과기대는 평양시 승리동 100만 제곱미터 대지 위에 1단계로 건설된 본부동, 학사동, 종합생활관, 기숙사, R&D센터 등 총 17개동의 건물, 총 연건평 8만 제곱미터의 크기로 완공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남북정부의 승인 하에 계획안이 구체화되고 2004년 하반기 본격적인 대학건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 Fighting Against Parkinson's

Even after 18 years of producing many miracles and stories, YUST continues to be the source of numerous moving testimonies. The latest story involves a YUST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Kim Dong-Il, who after being diagnosed with Parkinson's disease, had to leave YUST to receive care in South Korea.

After returning to Seoul in September 2009, Professor Kim has been hospitalized at Shinchon Severance Hospital since November 2009. He was barely able to rise from bed without assistance and was unable to afford a personal caregiver. Several YUST alumni, however, heard about his dire situation through a YUST web site message and organized nine alumni teams to help him. Each team personally coordinated devoted care for their professor for 12 hours a day during nearly a week's worth of time. The medical team at the hospital, as well as other patients, was deeply impressed by the devotion of the professor's former students.

Professor Kim wrote to his YUST colleagues and stated, "I deeply feel how priceless and precious daily life was as a member of the YUST community. Other patients in the hospital were surprised by how the YUST alumni were willing to come to the hospital, regardless of the quickly spreading H1N1 flu, when many others were hesitant to visit hospitals even for their own family members. There were some people who wondered and asked me how I taught students at YUST, who would even come to care for me long after they graduated. I answered them by saying that all YUST professors teach their students as though they were their own sons and daughters. They looked at me as if they could not understand how such a university as YUST could exist in this day and age. In this way, I could use my personal situation to introduce YUST to others as a garden filled with the fruits of loving-hearted teaching deeply rooted in Christianity." This story serves as a witness that YUST, where 80% of graduates are born again as Christians in a land where Christianity is banned, is within the providence of God.

## 파킨스병 투병중인 김동일 연변과기대 교수

개교 후 18년 동안 중국 땅에 수많은 기적과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연변과기대가 또 한번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전해 왔습니다. 연변과기대에서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파킨스병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투병중인 김동일 교수의 사연입니다.

2009년 9월, 감당하기 힘든 파킨스 병의 합병증으로 가족과 함께 서울로 돌아온 김동일교수는 11월 2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만큼 거동이 불편했고, 자신을 돌보아 줄 간병인을 구할 엄두를 내지 못 할 형편이었습니다. 동문들간의 웹 사이트 <http://www.loveyust.net/170987>를 통해 사정을 알게 된 연변과기대 졸업생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동문을 중심으로 5박6일 동안 12시간씩 2교대로 9팀을 만들어 지극정성으로 스승을 돌보아 병원 관계자와 다른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동일 교수는 연변에 남은 동료교수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함께 숨쉬며 같이 삶을 나누었던 삶의 현장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임을 이 곳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신종플루 때문에 환자 가족도 병원에 오기를 꺼려하는 상황에 제 발로 병원에 찾아와서 기쁘게 간병하고 방문하는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가르쳤기에 졸업생들이 찾아오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변과기대의 모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아들과 딸처럼 여기며 가르친다고 했더니 "세상에 요즈음 그런 대학이 있느냐?"는 눈빛으로 쳐다보아서 가슴속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신 여러 동역자 여러분께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는 현장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공식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가 금지된 땅에서 졸업생의 80%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연변과기대가 어떤 섭리 안에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사연입니다.



## Mary & Deborah's Special Summer

What inspired both of us to spend our summer at YUST was how God used President Kim's testimony and presentation this past semester in Urbana.

Both of us were very much moved by President Kim's passionate love for the Lord, and his fervor to magnify God to Chinese and North Korean people. We were both challenged when he rebuked the young people of this generation to 'do something now for God' and not later. We were also able to realize that there is a need in Yanji, and as we were both contemplating on what to do this summer, we thank God for providing this opportunity to serve.

We would like to mainly ask for your prayer support.

**Deborah's prayer topic** is that she would be able to depend on God for strength in showing love to them and also keeping God's glory at the center of her heart.

**Mary's prayer topic** is that she would learn what it means to serve other people before herself and be a blessing.

More than anything, please keep us in your prayers! Thank you

In Christ,  
Mary and Deborah

## Mary & Deborah의 아주 특별한 여름

일리노이대학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 재학중인 한인2세 Mary Ko와 Deborah Lim은 2010년 여름방학 동안 중국 연길에 있는 연변과기대에서 영어교사로 방학을 보내기로 헌신하고 배낭을 꾸리고 있다.

Mary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제목으로, Deborah는 연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슴에 품고 있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 Love for North Korea

**P**aul Koh, M.D. and Grace Lee o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who attended both the Opening Ceremony and Presidential Inauguration of September 2009 and the Techry Towers YPF worship service of April 2010, have made a generous donation in support of YUST and PUST through YPF. Dr. Koh has been interested in Christian medical missions for some time now, and has been working toward establishing hospitals for the prevention of tuberculosis in North Korea for the past ten years. Grace Lee, mother-in-law of Dr. Koh, has been interested in missions for most of her life and remarked that she "praise[d] and glorified God who has been working through YUST and PUST to spread the gospel in North Korea through education."

### 오래된 북한 사랑

2009년 평양과기대 준공식에 참여했던 UBF의 고바울 박사와 장모 Grace Lee씨는 YPF 결성을 후원하는 의미에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고바울 박사는 기독교의료선교회의 일원으로 지난 10여년 간 북한지역에 결핵예방병원을 세우고 의료선교를 하는데 애써왔습니다. 사위의 일을 후원하던 장모 Grace Lee씨는 성금을 전달하며 교육을 통해 북한지역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 Urbana-Champaign Prayer Group for PUST

**M**onthly prayer meetings for NK and PUST are being held at Urbana-Champaign, where the University of Illinois is located. Originally started as the "Chambana Group for 12 Baskets" in 2007, the prayer group went through some reorganization in September 2009. The group played a key role in promoting President James Kim's visit to the area in January 2010 by presenting the stories of the Great Revival of Pyongyang and PUST, to both the Korean-speaking and the English-speaking Christian communities. About 10-15 dedicated Christians meet at 7:30 pm on the third Tuesday of every month at the Korean Church of Champaign-Urbana.



### 평양과기대를 위한 어바나 샴페인 기도 모임

일리노이대학이 위치한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북한과 평양과기대를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 시작된 '열두 바구니 샴바나모임'은 2009년 10월 북한과 평양과기대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재정비된 이후, YPF의 기도후원 모임 중추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 김진경 연변, 평양과기대 총장의 어바나 방문 때는, 지역 영어권 교인들에게 평양대부흥에서 평양과기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어바나 샴페인 기도모임은 매달 셋째 주 화요일 7시 30분에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에서 만나 평양과기대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 How to Get Involved

### Cornerstone Church

Become a cornerstone church for YUST & PUST by organizing and hosting prayer support groups in your church and being involved in activities as the spiritual leader.

### Prayer Support

Organize local prayer groups for YUST & PUST. Once a group is organized by individuals or church organizations, YPF can provide support such as updates, guest speakers and attendance.

### Financial Support

Since YUST & PUST depend entirely on external funding for operation, consistent financial support is critical. There are mainly five areas for financial support: general operations of YUST and PUST, stipend for faculty and staff, scholarships for students, building fund for PUST, and the North Korean Children Program.

### Faculty Support

YUST & PUST are always in need of qualified faculty for for both short-term and long-term assignments. Those with graduate degrees in various fields can apply for teaching opportunities at YUST & PUST.

### Missions Trip

Individuals and churches can work closely with YPF to identify missions trip activities and programs at YUST.

### YUST PUST Foundation (YPF)

YPF is a non-profit organization run by volunteers in various capacities. You can join YPF and help in task-oriented groups. Below is a list of working groups:

- **PR & Communications:** Publicize YUST and PUST to the public through TV, newspaper, and internet; develop quarterly newsletter to update our support community; provide graphics and writing capabilities on our team.
- **Web Technology:** Develop and maintain the YPF website, manage databases, identify new technologies to operate foundation.
- **Finance:** Develop and maintain the financial system for YPF; monitor all financial activities.
- **Fundraising and conferences:** Organize and lead fundraising activities and events;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donors.

## YUST PUST Foundation

P.O. Box 336

Winnetka, Illinois 60093 USA

312.805.8646

yustpust@gmail.com

www.yustpust.org

**Program Overview**

**Y**PF, NAFEC Seoul and YUST are collaboratively supporting and operating this charitable program for children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North Korea. We can't specify the exact locations of these homes but most are in rural areas where the need is the greatest. Our program maintains a policy to support children in rural and outlying areas rather than in Pyongyang, where things are more accessible.

The Children Program supports children under age 10, who are being housed in homes run by North Korean caretakers. We provide food, milk, medicine and clothing on a monthly basis. Without our support, these basic necessities would be difficult to obtain within the local community. Our YUST administrators go in with the supplies on a regular basis, and see the children regularly.

We have two parts to the program which has reached a total of 33,000 children in 8 different regions:

- **Ongoing monthly support** Our program initially started with 500 children, but as of July 1, 2010, we now feed and support 6,000 children on an ongoing monthly basis. The cost to support each child is \$10/month. This is a commitment we have to the children and the homes, and we work diligently to be able to provide the food and supplies



**A father to the fatherless, a defender of widows, is God in his holy dwelling. (Psalm 68: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시68:5)

every month, at a cost of approximately \$60,000 per month.

- **Special request for support** As circumstances arise, we receive requests to assist other children in the country. Many times they are related to a shortage or disaster in the region. Last year, we helped an additional 27,000 children on an as-needed basis. We find that these requests come up frequently, and we try to fulfill as many as our donations will allow. Many times, we will take a love offering or make a special plea to our donors, when these situations arise.

In both programs, our YUST administrators purchase the food and supplies and take them into North Korea. We do not give money to the homes but prefer to show our love and concern by bringing in the needed items.

If you would like to support this program in prayers or funds, please contact us at [yustpust@gmail.com](mailto:yustpust@gmail.com).

**프로그램 개요**

북한의 북동부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이 자선프로그램은 연변 • 평양 과학기술대학 후원회, 동북아문화재단 서울 사무소, 연변과기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역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변두리 지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물자가 풍부한 평양지역보다는 변두리와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북한 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육아원에 소속된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음식과 우유, 약품과 의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원이 없이는 이러한 기초 생활용품들을 지역에서 구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연변과기대 당국자들은 정기적으로 지원품들을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발육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지역에서 약 33,000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규 지원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500명의 어린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0년 7월 1일 현재 6,000명의 어린이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린이가 한 명당 매월 10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어린이들과 육아원에 대한 약속이며, 음식과 지원물품들을 매월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약 매월 6만불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 지원프로그램** 현재 북한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지역의 재난이나 식량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이 비정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7,000명의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도움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후원자금이 허락하는 한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 후원자들에게 사랑의 손길과 지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주로 연변과기대에서 음식과 지원물품들을 구매하고 북한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아원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분들은 [yustpust@gmail.com](mailto:yustpust@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ow to Support**

- Please consider supporting a child/children. \$10 per month will provide each child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 Checks can be made out to YPF
- **Mailing Address:**  
YUST PUST Foundation  
P.O. Box 336, Winnetka, Illinois 60093

- **Phone number:** 312.805.8646
- **Email:** [yustpust@gmail.com](mailto:yustpust@gmail.com)

**후원방법**

-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매월 10불의 후원금으로 한 어린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수표의 수취인은 "YPF"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수표보내는 주소:**  
YUST PUST Foundation  
P.O. Box 336, Winnetka, Illinois 60093
- **전화번호:** 312.805.8646
- **이메일:** [yustpust@gmail.com](mailto:yustpust@gmail.com)